

## 속담 속 색채어의 의미 연구: [흑/백] 계열어를 중심으로\*

장 경 현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1. 서론

색채어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인지의미론의 관점에서 색채어의 의미를 고찰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색채 의미의 연구는 디자인학 등 실용적인 분야에서 더 활발한 편이다. 이는 색채어의 의미가 외연적 의미보다는 내포적 의미, 주로 사회적 맥락에 기반을 둔 의미에 가깝기 때문이며, 표현·의미·실재 지시 대상이 다른 어휘들보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대중의 의식과 상호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색채어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텍스트로 속담·관용구를 들 수 있다.

---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 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 조성사업비)으로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79-AS0100).

주 제 어: 색채어, 속담, 흑/백, 은유, 환유, 연어, 가치 평가, 원형  
color word, proverb, black/white, metaphor, metonymy, collocation,  
evaluation, prototype

속담·관용구는 오랜 기간 축적된 언중의 경험적 인식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속담·관용구에 나타나는 어휘들은 외연적인 1차 의미보다는 내포적인 2차 의미가 중심이 된다. 속담·관용구에서 나타나는 색채어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축적해 온 지식과 의식을 표현하면서 사회 맥락적 의미를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이 점에서 속담·관용구에 나타나는 색채어를 관찰하는 일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작업이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꾸준히 이루어졌다.<sup>1)</sup> 모두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고 색채어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의식 세계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접근 태도는 주로 색채어가 고유의 정서적·연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속담의 색채어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속담에서는 색채어의 의미가 어휘소 자체의 고유한 것이기보다는 언중의 공유 지식이나 다른 어휘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둘 이상의 어휘소가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작용으로 은유(metaphor)와 환유(metonymy)를 들 수 있다. 특히 속담은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풍자적이고 간접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기법이 빈번하게 쓰인다. 속담을 구성하는 어휘는 본래의 의미로서 기능하기보다는 확장된 의미로서 기능한다. 이때 속담에서 나타나는 어휘 의미의 확장은 해당 어휘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맥락 안에서 다른 어휘와의 언어적 구성을 통하여 의미가 일시적으로 전이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2)</sup> 이러한 의

1) 지인영(1999)은 한국 속담과 영어 속담을 비교하면서 특히 생활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명하였고 조영수(2002·2003)는 독일·영미·한국 속담·관용어 등에서 나타나는 색채어의 상징 의미를 비교한 연구로, 색채어의 상징 의미가 가지는 보편성을 잘 보여주었다. 박선혜·권영걸(2005)은 속담에 나타나는 서민의 색채 의식을 논한 연구로, 의미의 긍정/부정 가치의 양상, 대비 의미 등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른 연구들이 외국 속담과의 비교 연구인 반면 이 논문은 한국 속담을 본격적으로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언어학적 연구라기보다는 디자인학에서의 연구이므로 언어학적 관점에서는 다소 정밀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2) 지금은 그 의미를 첫눈에 알기 어려운 속담이 많다는 사실도 속담 어휘의 의미가 유동적

미 전이 과정에서 물리적·심리적 인접성에 의해 색채어에 다른 지시 대상의 의미나 가치 평가가 투영된다.<sup>3)</sup>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속담에 나타나는 색채 표현의 의미가 은유나 환유 등의 의미 전이에 의해 다른 구성 요소들과 연결되는 관계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분석해 보도록 한다. 여기서는 우선 [흑/백] 계열 색채어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그 외의 색채어는 다음 기회에 논하도록 하겠다. 또한 속담과의 경계가 불분명한 관용어는 그 성격에 차이가 있어 논의에서 제외한다.

자료로는 이기문 <속담사전>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속담 가운데 색채어가 나타나는 속담을 각 색채 유형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다. 속담은 우리나라 서민의 문화와 의식이 축적된 것이므로 전통적인 오방색(五方色)<sup>4)</sup>이 주로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에서는 [흑/백] 계열 색채어가 다른 색채어보다 많이 출현한다.

## 2. [흑/백] 색채어의 의미 특성과 환유

### 2.1. [흑/백] 색채어의 의미 특성

Wierzbicka(1996)의 NSM(Natural Semantic Metalanguage) 이론에서는

이고 맥락의존적임을 뒷받침한다. 속담은 매우 함축적이고 배경이 생략된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3) 본고에서는 의미의 확장을 좁게 보아 범위가 넓어진 의미가 어휘소의 독립된 의미로 정착된 개념으로 쓰고 있다. 공기하는 체언과 함께 일시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전이로 간주한다. 일반적인 은유·환유는 해당 텍스트의 맥락 속에서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는 반면 속담에서는 의미가 불분명할 때가 많다. 이에 대해 현실 지시 대상이 가지는 속성이나 공기하는 체언의 의미가 색채어에 투영되어 의미가 전이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4) 동양의 전통적인 색의 분류는 오행설에서 비롯된 오방정색(五方正色: 靑·赤·黃·白·黑)과 오방간색(五方間色: 綠·紅·碧·紫·硫黃)이 있다.

원형 의미론(prototype semantics)으로 색채어휘의 습득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즉, ‘red-fire/blood, blue-sky/sea’와 같이 각 색채마다 원형적 대상이 있어 인지적 과정에 따라 특정 색채를 볼 때마다 원형적 대상을 떠올린다는 것이다. 국어에서도 ‘붉은 피, 푸른 하늘’ 등 이와 유사한 원형적 대상이 있다.

이런 원형적 대상, 하늘의 색, 바다의 색, 사과와 색과 같이 사물의 색에 대한 지식을 기억색(memory color)이라고 한다. 사람은 뚜렷한 색의 특징을 더 강조하여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박옥련 1998:95). 속담에서는 특히 이런 원형에 가까운 기억색이 나타난다. 그러나 속담에서는 기억색이 나타나는 반면 원형적 대상은 그다지 뚜렷하지 않다. 속담에 쓰이는 어휘는 제한되어 있는 편이고, 속담에서는 기본 의미가 잘 나타나지 않는 대신 주로 확장되거나 전이된 의미가 나타나기 때문에 원형적 대상보다는 의도하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어휘가 쓰인다.

또한 [흑/백]은 유채색과 같이 어떤 속성을 지니지 않은 중립의 색이므로 오직 명도에 의해서만 세분된다. 따라서 유채색과 달리 비교적 단순한 의미를 가진다. 그 결과 속담에서 나타나는 [흑/백] 색채어도 분화된 양상을 보이기보다는 원형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특징은 의미뿐 아니라 형태에도 반영된다. 그러므로 ‘새까맣다/새하얗다, 시커멓다/시허엿다, 꺼멓다/허엿다, 거무스름하다, 희끄무레하다’ 등의 어휘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속담이 고정된 형식이라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sup>5)</sup> 속담은 관용구보다 더 보수적이고 고정적인 형식이므로 수식이나 변형이 가해지기 어렵다. 게다가 속담의 색채어는 물리적 현상에 대한 감각보다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주로 쓰이기 때문에 인지적 감각이 반영된 형태보다는 기본형이 선택되는 것이다.

보통 ‘검다/희다’라고 할 때는 상대적인 명도를 이르는 일이 많다. 특히 동식물명에 ‘검은/흰’이 생산적으로 쓰이는데, 그런 이름이 붙은 동식물이 실제로는 검은색이나 흰색을 띠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검은코뿔소’는 실제

5) 송현주(2003: 143)에서는 1차의미가 아닌 확장의미의 경우 색채어가 고정된 형태를 보임을 밝힌 바 있다.

로 어두운 회색이지만 ‘흰코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게 보이므로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흰코뿔소’도 밝은 회색이다. 이런 사실은 [흑/백] 개념이 다른 색채어의 개념과는 다른 종류임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흑/백]은 추상화된 극단적인 명도 개념으로서 심리적·추상적 의미를 가지기 쉽다.

속담에 나타나는 색채 개념은 명시적인 색채어로만 표현되지 않는다. 특정 색채를 대표적인 속성을 가진다고 간주되는 동물이나 사물이 간접적으로 색채 개념을 전달한다. 원형 대상에 대한 인지적 의미 해석이 언중 사이에 공유된 세계 지식을 바탕으로 작용하여 색채어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다. Lyons(1995)가 언급한 바와 같이 어휘에 있어서 문화적 요소와 자연적 요소는 서로 맞물려서 동등하게 의미를 결정한다. 이런 점은 속담에서 특히 뚜렷이 나타난다.

또한 [흑/백]은 [적/청/황/녹] 등의 색채어와는 성격이 다르다. 색채 이론에서는 가색혼합(加色混合)으로 빛의 삼원색을 혼합하면 백이, 감색혼합(減色混合)으로 색료의 삼원색을 혼합하면 흑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다(박옥련 1998: 36-37). 이런 물리적인 현상도 [흑/백]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와 일치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자연색에서 가장 양극단에 위치하는 두 색이면서, 물리적으로도 ‘백=양(+)/흑=음(-)’이라는 인지 개념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흑/백]이 가지는 2차 의미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색채어는 1차 의미 외에 연상과 사회 맥락에 따라 의미가 확장되어 2차 의미를 가진다.<sup>6)</sup> 색채어의 연상 의미는 박옥련(1998: 105-106)에 설문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어 그 중 [흑/백] 계열의 결과만 여기 인용해 본다.

이 설문 결과를 보면 대체로 ‘백=긍정/흑=부정’의 연상 작용을 알 수 있다. 여자의 경우 [흑]에서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연상 내용이 있는 것이 특이한데, 구체적 연상 내용에 ‘가톨릭 신부’가 있어 그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상복’이 [흑/백] 양쪽에 있는 것은 동서양의 상복이 다르기 때문이다. 오행 설에서 [흑]은 북쪽, [백]은 서쪽에 해당하는 색으로, 둘 다 陰에 속하므로 흥

6) 색채어의 의미 확장에 관해서는 송현주(2003: 143-144)에서 논한 바 있다. 여기서는 원형 의미에서 확장되는 단계를 1) 얼굴색의 변화 2) 집단의 양 3) 거리와 시간 4) 심리 상태의 순서로 설정했다.

색상 명칭	성년남자(대학생)				성년여자(대학생)			
	추상적 연상		구체적 연상		추상적 연상		구체적 연상	
	연상내용	%	연상내용	%	연상내용	%	연상내용	%
흰색	청결	31.3	눈	26.6	청결	44.0	눈	20.4
	순결	19.4	웨딩드레스	5.8			간호사	17.5
	순박	9.4	간호사	5.8			백합	7.3
	순수	5.6	병원	5.0			소복(상복)	6.6
							병실	6.6
						드레스	5.1	
검정	불안(공포)	16.1	밤	34.1	암흑	24.2	밤	16.9
	암흑	14.2	학생복	23.3	공포(불안)	12.1	상복	9.9
	죽음	5.2	상복	6.2	안정	4.8	가톨릭	5.6
	악	4.5			죽음	4.2	신부	5.6
							학생복	5.6

례(凶禮)에 사용되었다(박선혜·권영걸 2005: 5).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위의 결과와 같은 연상 의미를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속담·관용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1) ㄱ. 까마귀가 검기로 마음도 검겠나
- 나. 흑백을 가리다

실제로 [흑] 계열 색채어는 영어에서도 ‘Things look black(사태가 험악하다)’과 같이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예전에는 긍정적인 뜻이던 ‘Lily-white(결백한, 순수한)’가 지금은 인종 차별 문제 등으로 오히려 부정적인 뜻을 갖게 된 예가 있듯이 이런 2차 의미는 상대적인 것이다(조영수, 2002: 517). 국어에서도 [백] 계열 색채어가 부정적으로 쓰이는 예들이 있다.<sup>7)</sup> 이와 같이 색채어의 2차 의미는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며 상대적이

7) <표준국어대사전>의 ‘희다’ 뜻풀이 중 두 번째 뜻풀이는 ‘희뻘다’의 뜻풀이인 ‘말이나 행

라는 특징이 있다. ‘하얗게 질리다, 허영게 뜨다’와 같은 표현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윤기가 흐르는 검은 머리’와 같은 표현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인간의 보편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언어마다 대체로 비슷한 2차 의미가 나타나긴 하지만, 언어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며 특히 속담·관용구에서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의미의 차이가 더 많이 나타난다. [흑/백]은 비교적 보편적인 공유 의미를 가지나 그 외의 유채색에서는 그러한 맥락의존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속담에 나타나는 색채어는 색채어 자체의 고유 의미보다는 맥락 내에서의 의미를 관찰하는 것이 좀 더 의미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다.

## 2.2. 속담에서의 환유(metonymy)

많은 어휘들이 외연 의미 외에 내포 의미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은유·환유·상징 표현으로 활용된다. 그 중에서도 색채어는 색채 자체의 물리적 속성보다는 관습적인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 의미가 확대되어 기능을 발휘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의 속성과 그 사물의 색이 언중의 관념 속에서 등가를 이루면서 ‘색/색채어=사물의 속성’의 의미 관계가 되어 버린다. 색 또는 색채어 자체가 기호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백]은 많은 경우 [순결, 청결, 정직] 등 긍정적인 가치를 표상한다. 그러나 ‘백색의 공포’와 같은 표현에서는 마약이 하얀색 가루라는 사실에서 [백색=마약]으로 의미가 전이된다. ‘황색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sup>8)</sup>의 경우 [황색=선정성]이 된다. 이런

---

동이 분에 넘치며 버릇이 없다’의 동의어로 되어 있다. 관용구에서도 ‘회고 곰팡이 슬다, 흰 눈으로 보다’에서의 ‘회다’는 이 뜻이다. ‘검다’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뜻이 제시되어 있는데 ‘회다’는 긍정적인 뜻은 제시되지 않고 부정적인 뜻만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사전에서의 의미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다.

8) 이 말은 미국 신문에 연재되었던 인기 만화 <Yellow kid>를 두고 경쟁 언론사 간에 지저분한 싸움이 벌어진 데서 비롯된 말이다. 따라서 [황]이 가진 고유의 속성과는 별도로 특정 사건이라는 배경에서 나온 의미인데 지금은 이 배경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언

경우는 연상에 의한 은유보다는 인접성에 의한 환유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색채어의 개념적 은유에 관해서는 박경선(2001)에서 논한 바 있다. 이 논의에서는 영어와 국어의 속어를 예로 들면서 색채어 자체가 개념적 은유의 의미를 표상하는 것으로 단언하였다. 그렇지만 조영수(200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속어 표현은 제각기 다른 배경과 맥락을 갖고 있고 이로 인해 색채어가 결정된 것이 많다. 따라서 은유뿐 아니라 환유의 측면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색채와 관련된 환유가 나타나는 경우는 크게 비언어 기호와 언어 기호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비언어 기호의 경우, 표지판 등의 색채 기호가 좋은 예다. 화장실 표시도 빨간색은 여성, 파란색은 남성과 같이 표시한다. 이는 상징(symbol)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실제 남녀 주변 사물 등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환유적 의미 전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언어 기호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그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속담 색채어의 의미는 은유보다는 환유에 가깝다. 은유에서는 보조 관념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전이된 의미만이 기능한다. ‘그는 꿈이다’에서 ‘꿈’은 이미 현실의 짐승으로서의 의미가 사라진 어휘이다. 반면 환유가 사용된 속담 ‘곰의 발바닥도 피가 있다’에서 ‘곰, 발바닥’은 결과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긴 하지만 1차 의미가 살아 있다. ‘곰’의 연상 의미가 ‘발바닥’으로 이동했지만 두 어휘의 의미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것으로 속담 색채어의 의미가 환유에 의한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환유는 부분이 전체를 나타내거나 생산자가 생산물을 나타내거나 하는, 인접한 보조 관념 A가 원관념 B를 대체하는 관계를 이르는데 속담의 경우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속담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환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색채어의 의미 자체를 보면 오히려 상징(symbol)에 가깝다. 다만

---

론’과 언어 구성으로만 그 의미가 나타난다.

- 9) 복한 속담. 아무리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이라도 제 살 궁리는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국어대사전. 이하 표준)

속담에서의 색채어는 대부분 체언과 공기하여 의도된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 의미가 과연 색채어 고유의 의미인지 아니면 공기한 체언과의 연어 구성에서 도출된 것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조영수(2002)에서는 영어 속어 표현에 나타나는 색채어가 공기하는 체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였다. 영어의 속어 표현을 살펴보면 색채어가 나타내는 의미에 사회적·역사적 배경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sup>10)</sup> 즉, 색채의 고유한 속성 때문에 의미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물의 색채가 그 상황 자체를 환기시키는 데서 의미가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ㄱ. 빨간 상늬 푸른 양반

ㄴ. 흰떡에도 고물이 든다<sup>11)</sup>

ㄷ. 까마귀 제아무리 흰 칠을 하여도 백조로 될 수 없다<sup>12)</sup>

(2ㄱ)의 의미는 ‘모든 것을 드러내 놓고 마구 사는 상늬와 서슬이 푸르게 잠잔을 빼고 있는 양반을 대조하여 이르는 말(표준)’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실제의 색채와는 별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벌거숭이, 적수공권’에서 볼 수 있는 [裸]와 가깝다. ‘푸른 양반’은 ‘서슬이 퍼렇다/푸르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또 다른 해석으로는 청색이 당당한 양색(陽色)이며 또한 유생을 ‘청금(靑衿)’이라고 하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박선혜·권영걸 2005: 4). (2ㄴ)에서의 ‘흰떡’은 특정한 음식의 명칭으로서, 여기서의 ‘희다’는 실제 사물의

10) ‘white-livered(겁 많은, 소심한)’는 각기 고대 그리스·로마에서 전쟁 전에 동물을 희생으로 바치고 그 간의 색깔을 살펴보아 간이 붉으면 승리를, 간이 창백하면 패배를 점쳤다는 데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또 ‘show the white feather(비열하게 행동하다)’는 투계(鬪鷄)에서, 순종의 싸움닭은 깃털이 붉거나 검은 반면 잡종의 닭은 깃털이 희고, 항복을 표시할 때 흰 깃털이 나타난다는 말에서 왔다고 한다(조영수, 2002, 519-520).

11) 아무리 힘 안 들이는 일이라도 그것을 성사시키자면 다소간의 밀천이 든다는 뜻. 즉 공으로 되는 일이 없다는 뜻.

12) 복한 속담. 아무리 애를 써도 본디 타고난 대로밖에는 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색이기도 하고 [無]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2ㄷ)은 ‘까마귀’와 ‘백조’에 색채어의 개념과 형태가 들어 있는데, [흑/백]이 나타내는 [부정/긍정]의 2차 의미가 실제 동물의 색깔과 연결되어 표현된다. ‘까마귀/백조’는 [흑/백]>[긍정/부정]이라는 의미 확장 결과를 ‘사물-속성’ 관계의 환유로서 담게 되었다.<sup>13)</sup>

이런 속담들에서 일어나는 의미의 전이는 완전한 환유라 하기 어렵더라도 환유에 가까운 것이다. 연어 구성이 지시하는 실제 대상의 속성으로 인하여 인접성을 가진 수식어 색채어 쪽으로 피수식어인 체언의 속성이 전이되어 나타난다.<sup>14)</sup> 속담 속 색채어의 의미를 살필 때 이러한 관점이 도움이 된다.

### 3. 색채어에 따른 속담의 부류

[흑/백] 계열의 색채어가 나타나는 속담이 다른 색채 계열 속담보다 더 많은데, 이것은 두 계열이 무채색인 데다가 대립성이 뚜렷하므로 더 많은 의미 확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sup>15)</sup> 속담에서 색채어는 주로 ‘개, 고양이, 까마귀, 소, 돼지, 술, 떡, 머리, 솟’ 등과 결합한다.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가까운 가족이나 식생활과 관련된 어휘와 함께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흑/백] 계열 색채어 속담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 1) [흑] 계열 색채어가 단독으로 나타나는 속담

- 
- 13) 이때 ‘까마귀/백조’는 물론 인간의 은유 표현이다. 그러나 ‘실체의 동물>색채의 원형 대상>가치 의미’로 의미가 전이되는 과정에서 첫 단계는 환유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 14) 여기서 ‘수식어/피수식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실제 속담에서는 ‘까마귀/백조’와 같이 이러한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언중이 인지하는 의미 구조는 [흑]+[새] : [백]+[새]와 같이 나타난다고 간주하여 뭉뚱그려 수식/피수식 관계로 설명하였다.
  - 15) 또한 다른 색들은 특수한 염료를 써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서민 생활에 그다지 많이 가깝지 않았던 이유도 들 수 있을 것이다.

- 2) [백] 계열 색채어가 단독으로 나타나는 속담
- 3) [흑/백] 대립이 나타나는 속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속담에서의 색채어 의미는 유동적이고 상대적이므로 [흑]과 [백] 계열 색채어들이 뚜렷하게 의미의 대립을 보이지만은 않는다. 그리고 색채 표현이 1차 의미만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모습을 살펴보고 하겠다. 여기서는 직접적인 색채어뿐 아니라 ‘까마귀, 검정개/백로, 흰떡’ 등과 같이 색채 표현이 결합한 어휘들까지 색채어에 포함시킨다.

### 3.1. [흑] 계열 색채어 속담

[흑] 계열 속담은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음의 속담에서는 [흑]이 부정적인 가치를 가진다. [흑]은 엄숙함, 침묵, 불길, 슬픔의 색으로 복잡미묘한 느낌을 전달한다(박옥련 1998: 182). 여기서는 특히 ‘까마귀’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외면의 물리적 색채인 [검정]을 ①외면의 추함과 ②내면의 부정적 가치의 두 가지로 나타낸다. 이 경우 대부분 [긍정/부정]의 대립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속담에서는 ①과 ②의 어느 한 가지 의미만 사용되기도 한다.

- (3) ㄱ. 가마 밑이 노구슬 밑을 검다 한다/가마가 솔더리 검정아 한다<sup>16)</sup>
  - ㄴ. 검둥개 먹 감기똥[감똥]/검둥개 미역 감긴다고 회어지지 않는다/검정개 미역 감긴 격<sup>17)</sup>
  - ㄷ. 숲이 검정 나무란다<sup>18)</sup>/까마귀가 까치 보고 검다 한다/검정개 돼지 흥

16) 더 시꺼먼 가마솥 밑이 덜 시꺼먼 노구슬 밑을 보고 도리어 검다고 흥본다는 뜻으로, 남 못지 않은 잘못이나 결함이 있는 사람이 제 흥은 모르고 남의 잘못이나 결함만을 흥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7) ①물건이 검은 것은 아무리 물에 씻어도 깨끗하게 회어질 수 없다는 뜻으로, 어떤 일일 해도 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악인이 제 잘못을 끝내 뉘우치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한다[흥본다]

- ㄹ. 시거든 뿔지나 말고 엽거든 검지나 말지<sup>19)</sup>
- ㄷ.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sup>20)</sup>
- ㄴ. 시꺼먼 도둑놈<sup>21)</sup>
- ㄷ. 머리 검은 고양이 귀치 말라/머리 검은 고양이 귀혜 말라<sup>22)</sup>
- ㅇ. 머리 검은 짐승은 남의 공을 모른다/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구제 말란다<sup>23)</sup>

(3ㄱ-ㄷ)의 속담은 ①과 ②의 의미가 모두 나타나는 것들이다. 물리적인 색채가 그대로 가치 평가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색채의 의미가 사물의 본질과 동일시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면과 내면의 의미가 일치한다. 이런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은 체언만이 아니다. 용언이 표현하는 행동이 부정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나무라다, 미역 감기다, 흥보다’ 등은 [흑]이라는 속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것으로 [흑]은 피하고 떨쳐버려야 할 부정적인 속성임이 드러나는 것이다. (3ㄴ)은 ‘엽다-검다’가 등가로 배열되어 외면의 추함이라는 의미를 보여준다. 이러한 외면적 가치 평가가 다시 내면적 가치 평가로 전이되었다. (3ㄷ)은 다른 것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실제 사물과의 관계가 다른 속담보다

---

18) 숲이 검은 것을 나무란다는 뜻으로, 제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허물을 들추어 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19) 사람이 못났으면 착실하거나 하거나 재주가 없으면 소박하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20) 좋지 못한 사람과 사귀게 되면, 그를 닮아 악에 물들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21) 마음씨가 몹시 음흉하고 흉악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22) 복한 속담. 귀여워하여 보아야 보람이 없고 자칫 잘못하면 할퀴를 받을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머리 검은 고양이'가 부정적인 가치를 가지는가 또는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는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대부분 검은 짐승은 부정적인 가치를 가지며 특히 고양이의 경우 부정적인 가치를 가지는 일이 많다는 점에서 이 속담을 부정적인 부류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고의 의미를 가지는 속담이므로 '머리 검은 고양이'는 [접근하거나 정을 주지 말아야 할 대상]의 의미를 가진다.

23) 사람이 오히려 짐승보다 더 남의 은혜를 모른다는 말(표준).

없고 비유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 또한 ‘떡’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일이 이 경우 외에는 별로 없는데, 이 속담이 한자성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색채 관련어와 공기하는 ‘까치, 돼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실제 동물의 속성과 관련된 것으로, 까치는 등이 까맣지만 배는 하얗기 때문에 [백] 계열 속담에서도 나타난다.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 돼지가 검정개와 함께 동일 범주로 묶인 것은 돼지가 실제 검은색이라 서라기보다는 지저분하기 때문일 것이다. ‘검다’와 ‘지저분하다’는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 없지만 외면적인 부정적 가치가 공통 분모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렇게 검은 개와 돼지를 동일 범주로 묶은 예가 또 있다.

#### (4) 검둥개는 돼지 편

객관적 지각의 결과인 [검정]과 주관적 평가의 결과인 [더러움]이 동일시됨을 알 수 있다. 실제로는 동일한 범주가 될 수 없으나 속담에서는 경계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관계가 형성된다. 돼지는 이외에도 [퐁퐁함/뽀뽀함/우둔함] 등의 평가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속담에 쓰이는 동물·사물에 대한 언중의 인지적 인상은 같은 대상이라도 초점에 따라 달라진다.

(3b)은 실제 대상의 외면과 별 관계가 없는 언어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의 ‘시꺼멧다’는 물리적 색채가 아닌 심리적 평가로서 특별히 선택된 어휘이다. 속담에서는 흔치 않은 음성상징적 변이형이 나타난 예로, ‘시꺼멧다’라는 강조 형태에서 부정적인 가치가 강조되고 ‘도둑놈’의 부정적인 가치가 결합하여 전체 의미가 뚜렷하게 부각되었다.

(3c-o)은 다소 특이한 예이다. 두 유형 모두 ‘머리 검은’이 나타나는데 후행 명사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고양이’는 앞의 ‘검정개, 까마귀’와 비슷한 의미로 보인다. 반면 ‘머리 검은 짐승’은 ‘사람’을 뜻한다. [부분-전체]의 환유로 ‘사람’의 부정적인 속성을 표현했는데, 이때의 부정적인 속성은 ‘검다’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 검은 짐승’이라는 구 전체에서 나타나는 것이다.<sup>24)</sup>

24) 추측에 불과하지만 ‘머리 검은 고양이’의 경우도 어쩌면 ‘머리 검은 짐승’과 같이 ‘사람’

다음은 [혹]의 물리적인 색채로서의 1차 의미만 나타나는 속담이다.

- (5) ㄱ. 검정개 한패[한편]/검정개는 돼지 편
- ㄴ. 검기는 왜장 청정(淸正)이라<sup>25)</sup>
- ㄷ. 검은 고양이 눈 검은 듯<sup>26)</sup>

여기서 [혹]은 별다른 가치 평가나 의미 전이를 보이지 않는다. 순수한 검은 색으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물론(5 ㄱ)은 외면적 가치 평가가 반영되어 있긴 하다. 앞의 속담 가운데 유사한 ‘검정개 돼지 흥본다’는 전술한 바와 같이 부정적인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5 ㄱ)에서는 상황 전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는 있어도 어휘 자체는 ‘가재는 게 편’과 같이 중립적이라 할 수 있다.<sup>27)</sup>

다음 속담은 외연적 평가와 내면적 평가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 준다.

을 가리키는 표현일 가능성이 있다. 이때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은 속담의 일반적인 비유 기능과는 다른 개념이다. 속담에서의 ‘까마귀, 백로, 개, 돼지’ 등은 연어 표현과 관계 없이 일반적인 사람을 대체하는 구실을 하나 ‘머리 검은 고양이’는 연어 구성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표상하는 것이다. ‘검은 고양이’가 대체로 불길한 상징으로 여겨지긴 하지만 이때는 특별히 머리가 검다고 한정된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검은 머리=사람(동양 사람)]의 환유적 표현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 25)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침략한 왜군 장수 가토 기요마사를 빗대어 왜간장이 검다는 데서, 빛이 검은 것을 이르는 말(표준).
- 26) 검은 고양이가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얼른 보아 알아보기 어렵듯이,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분간하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 27) 속담의 해석에 있어 어려운 점은, 속담의 내포 의미에서도 해석이 몇 가지로 갈릴 수 있고 그 가운데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5 ㄱ)도 단순히 외모에 공통점이 있는 무리끼리 어울린다는 뜻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가치를 가진 무리끼리 어울린다는 뜻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속담은 독자적 해석 외에도 이중적인 의미 구조를 가지는 일이 많다.

- (6) ㄱ. 까마귀 걸 검다고 속조차 검은 줄 아느냐/까마귀가 검기로 마음[살/속]도 검겠나/까마귀가 검어도 살은 희다[아니 검다]  
 ㄴ. 내 땅 까마귀 검어도 귀엽다  
 ㄷ. 검은 고기 맛 좋다[있다] 한다<sup>28)</sup>

앞의 속담들이 외면과 내면을 동일시한 반면 (6-ㄱ)은 ‘검다’가 외면적인 부정적 의미를 가지면서도 내면은 외면과 다르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6-ㄴ)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것은 부정적인 외면마저도 긍정적으로 인식된다는 뜻이다. (6-ㄷ)은 일종의 속설과 같은 형식을 가지고 보편적인 부정적 인식을 바꾸려는 의도를 보인다. 이때, 대부분의 속담에서 ‘까마귀’가 [흑]의 속성을 가진 대표적인 사물로 제시된 것을 알 수 있다. ‘까마귀가 아저씨 하겠다’와 같은 속담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까마귀’는 [흑]의 대표적인 표상으로서 기능한다. 그렇지만 위의 속담들은 까마귀를 외면적으로는 부정적인 평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까마귀가 색 때문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흉조 또는 초라한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고정관념에 의거한 것이다.<sup>29)</sup>

많지는 않지만 [흑]이 긍정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 (7) ㄱ. 전신이 검은 돼지는 주인에게 덕을 준다  
 ㄴ. 소는 검정 소를 기르랬다/같은 외상이면 검정소 잡아 먹겠다  
 ㄷ. 머리카락이 검은 재상<sup>30)</sup>

28) ①겉모양만 가지고 내용을 속단하지 말라는 말. ②살갓이 검은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표준).

29) 북한 속담에 ‘죽지 부러진 까마귀’는 ‘부정적인 대상이 치명상을 입어 더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뜻이 있는 반면 ‘죽지 부러진 새[독수리]’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자기의 힘과 재능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뜻이다. 이러한 ‘까마귀’의 평가적 의미는 단순히 까마귀가 검은 색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죽은 고기를 먹는다는 울음소리가 사람 목소리와 비슷하다든지 하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30) 젊은 나이에 높은 벼슬에 오름을 이르는 말.

(7ㄱ-ㄷ)은 가축의 품종을 지시하는 표현으로 보인다. 이것은 순수한 체험주의적이고 민간모형(folk model)에 바탕을 둔 결과로<sup>31)</sup>, 이때의 [흑]은 ‘상급의 품종’을 표상하는 표지(marker)로서의 의미만을 가진다. 특히 ‘돼지’는 앞서 보았듯이 ‘검정개’와 동일 범주로 묶여 외면적이든 내면적이든 부정적인 평가 의미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흥미롭게도 (7ㄱ)은 ‘검다’와 공기하여 긍정적인 평가 의미를 가진다. 이를 보건대 ‘검정개’와 등가를 이루는 ‘돼지’는 검은색보다는 [더러움]의 속성을 표상하는 것이고 ‘검은 돼지’는 각각의 ‘검다’와 ‘돼지’가 가진 부정적 평가 의미가 없어지고 1차 의미만 결합한 것이라 하겠다.<sup>32)</sup> (7ㄷ)은 [짧다] 개념을 검은 머리카락이라는 신체의 일부분으로 표현한 예이다. 이것은 재상이라면 나이가 많아 머리가 흰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현실의 상식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공유 지식이 전제되어야 의미가 성립되는 환유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 앞서의 ‘머리 검은 짐승’과 비교할 때 ‘머리 검다’ 자체의 의미보다는 후행 명사와의 연어 구성에서 그 의미가 결정됨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색채 자체보다는 공기하는 명사의 의미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우이다. 조영수(2002: 516)에서도 지적했듯, 속담·관용구에서의 사회맥락적 의미는 색채어와 공기하는 명사에 따라 결정될 때가 많다.

(8) ㄱ. 이월 바람에 검은 쇠뿔이 오그라진다<sup>33)</sup>

ㄴ. 흑각(黑角) 가로 보기라<sup>34)</sup>

31) 임지룡(2006: 77, 각주 2) 참조. 이때의 ‘검은 돼지, 검정 소’는 추상화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햄프셔, 요크셔’와 같은 품종명과 궤를 같이 하지만, 언중의 일상 생활 속에 경험적으로 형성되어 축적된 상식에 기반한 현실적인 개념이다.

32) 일상적으로 접하는 돼지 중 검은 돼지는 흔치 않다는 사실에서 ‘검다’의 통상적인 평가 의미가 없어지고 ‘귀한 품종’을 나타내는 표지로서의 의미만이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말, 표범 등은 검은 품종이 귀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과 관련지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대체로 [흑/백] 계열의 동물은 자연에서 흔하지 않은 종이다.

33) 이월에 부는 바람이 세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34) ‘흑각’은 빛깔이 검은 물소의 뿔. 어느 쪽이 이로우까 이리저리 따져 보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 ㄷ. 검은 강아지로 돼지 만든다<sup>35)</sup>  
 ㄹ. 검은 개 굶 구경/검정개 굶 구경<sup>36)</sup>

여기서 사실상 [흑]은 다른 색채어로 교체되어도 속담의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앞에서 검은 소가 상위의 품종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8ㄱ-ㄴ)도 그런 의미가 살아 있는 게 아닐까 한다. ‘검은 개’는 이미 ‘돼지’와 동일 범주에 묶임을 보았으므로 (8ㄷ)도 이해가 된다. (8ㄹ)은 그냥 특징 없는 흔한 개의 상징으로 검은 개가 쓰였다. 이들 속담에서는 [흑]의 의미가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고 후행 명사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예들을 볼 때, 여기서 나타나는 색채어는 구체적인 색채가 아닌 원형 대상에 기댄 기억색이거나 아니면 심리적 상징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흑]의 내포 의미는 공기하는 다른 어휘들의 관습적 의미 속성이 전이되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백] 계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 3.2. [백] 계열 색채어 속담

[백] 계열은 순결, 신성, 청초의 상징이지만 불안정한 성격이 있다(박옥련 1998:180). 명도가 가장 높은 색인 만큼 다른 색의 영향을 받기도 쉽고 그 이미지가 변하기도 쉬우며, 백색을 구현·유지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식주에서 주로 나타나는 색이다. ‘밥, 옷’ 등과 함께 쓰인 예가 많은 사실이 이를 증명해 준다. 따라서 [백] 계열은 속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색채이기도 한데, 이에 대해 문은배(2002)에서는 몇 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1) 한민족은 태양을 숭상했으며, [백]은 태양의 가장 밝은 빛에 해당한다. 2) 한국인은 청렴결백을 가장 이상적인 덕목으로 꼽아왔다. 3) 상복에 백색이 사용되었고 이는 속죄의 의미와 더불어 죽은 자의 길을 밝힌다는 의미가 있다.

35) 잘 넘어가지 않을 얇은 수로 남을 속이려 한다는 말(표준)

36) 북한어. 검정개가 굶판에 와서 멧없이 서 있듯이 아무런 목적과 타산 없이 어떤 일에 참여하는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상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만큼 흰옷을 입는 시간이 길었다. 4) 조선 시대에는 계급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색채가 제한되었고 황색이나 적색을 금지당하여 서민들이 흰색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 5) 물감이 희귀해 흰색을 선호하였다. 그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백]이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인식된 것은 아니다. 백색은 조선 시대에는 13차레나 금제가 내려졌었다. 그 이유는 오행사상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동쪽에 위치해 있으므로 청색에 해당하는데 백색은 서방의 색으로, 상극이 되어 맞지 않다는 것이었다(나지영 2002: 9). 또한 ‘흰 나비를 먼저 보면 상제가 된다’와 같은 길흉담도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흑/백]의 무채색 계열이 흉사(凶事)를 나타내는 것도 관련이 있다.

[흑] 계열 색채어가 여러 가지 어휘와 결합하여 비교적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 반면 [백]은 [흑]에 비해 다소 제한되어 있다. 다음은 [백] 계열의 긍정적인 의미를 상징적으로 사용한 예들이다.

- (9) ㄱ. 백옥이 진토에 묻힌다<sup>37)</sup>
- ㄴ. 상전의 빨래에 종의 발뒤축이 희다<sup>38)</sup>
- ㄷ. 실뱀이 흰 바닷물을 흐린다<sup>39)</sup>

일상적으로는 [백] 계열 색채어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일이 많다. 별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를 선호하는 현대 서양인과 달리 동양에서는 흰 피부를

---

37) ①흰 구슬이 흙먼지 속에 파묻혀 빛을 내지 못한다는 뜻으로, 유능한 사람이 재능을 드러내지 못하고 묻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겉으로는 끈궁하게 보이나 본색은 변함없이 훌륭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38) 상전의 빨래를 하여 주면 제 발뒤축이 깨끗하게 된다는 뜻으로, 하기 싫어 마지못해 하는 남의 일이라도 해 주고 나면 얼마간의 이득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

39) 한 사람의 잘못이 여러 사람이나 집단 전체에 폐를 끼치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표준)